



한국프로젝트경영협회
KOREA PROJECT MANAGEMENT ASSOCIATION



e-News 3월

2025. 3. 한국프로젝트경영협회

- 회원 스토리 모집

-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을 경우 담당자 이메일 (aychoi@pma.or.kr)로 보내 주시면 매월 발간되는 e-News에 반영하겠습니다.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년 교육 및 자격인증시험 일정

구분	과정명	차수	기간	일수 (시간)	교육비 (회원가)	비고
발전 플랜트	LNG복합발전소건설 PM 실무 (Ways of Working)	1차	3/26~28	3(20)	60만원 (50만원)	수/목/금
		2차	6/25~27			
		3차	9/10~12			
	발전소 Overhaul PM 실무 (Ways of Working)	1차	2/26~28	3(20)		
		2차	6/3~5			
		3차	9/24~26			
원자력발전소건설 PM 실무 I (Ways of Working)	1차	5/21~23	3(14)	50만원 (40만원)	수/목/금	
	2차	9/3~5				
원자력발전소건설 PM 실무II (Ways of Working)	1차	7/9~11				
	2차	11/19~21				
전문	글로벌 안전보건관리 (Business Acumen+Power Skills)	1차	4/16~18	3(14)	50만원 (40만원)	수/목/금
		2차	8/27~29			
자격증	PM 전문가 양성 (Ways of Working)	1차	3/10~14	5(35)	90만원 (80만원)	월~금
		2차	4/21~25			
		3차	6/16~20			
		4차	9/15~19			
		5차	11/24~28			
	PMP® 핵심정리 및 예제풀이 (Ways of Working)	1차	1/13~15	3(12)	20만원 (15만원)	월~수
2차		5/26~28				
기 타	월간세미나	8회	1~10월	1(2)	2만원 (무료)	화
	PM 심포지엄 (Ways of Working)	1회	11/6 (on) 11/7 (off)	2(14)	30만 (20만원)	목/금
자격 시험	프로젝트경영사 (2, 3급)	6/20		1 (2~2.5)	5~10만원 (급수별 차등)	금
		10/24				

회원사 소식

이안

이안, 'IDT Alliance 포럼' 성료...산업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혁신 전략 논의

산업 디지털 트윈 설계 전문기업 이안(대표 이승호)은 'IDT Alliance 포럼 2025'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산업 디지털 트윈과 데이터 엔지니어링의 역할을 중심으로, 건설 산업과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 분석, 예측 및 최적화 기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창소프트아이앤아이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및 가상설계·시공(Virtual Design and Construction) 기반의 건설 데이터 자동화 기술을 소개하며, 건설 산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쿼드마이너는 IT/OT 융합과 보안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의 역할을 조명하고, 보안 환경에서의 실시간 대응 및 데이터 보관 방식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이안은 이번 포럼에서 디지털 트윈과 데이터 엔지니어링이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디지털 트윈 팩토리(Smart FAB 등) 구축을 위한 최적의 전략과 성공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창소프트아이앤아이, 쿼드마이너와의 협업 가능성을 모색하고, 향후 5년간 디지털 트윈 기술의 변화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더불어 ▲디지털 트윈 시장 경쟁과 중소기업의 주도권 유지 방안 ▲AI 기반 자동 설계 검증 기술 ▲디지털 트윈 데이터 보관 방식(클라우드 vs 외부 서버) ▲AR 기반 설계 검수 기술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3D 설계 자동 생성 가능성 ▲네트워크 블랙박스의 실시간 대응 적합성 등 디지털 트윈 관련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며, 업계 전문가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이안 관계자는 "디지털 트윈은 제조, 건설, 보안 등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교류와 포럼을 통해 디지털 트윈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1 - (왼쪽부터)이안 조규민 COO, 창소프트아이앤아이 김은석 대표, 쿼드마이너 김용호

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 건축·기계 분야 설계 엔지니어링 협력사 간담회 개최

철도건축 설계 품질 향상 및 동반성장 방안 논의

국가철도공단 SE융합본부는 2025년 발주계획을 공유하고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건축·기계 설계 엔지니어링 분야 간담회'를 27일(목) 대전 본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총 9개 협력사가 참석했으며, 공단의 2025년 철도건축 주요사업 계획 ▲ 건축 설계품질 고도화 ▲ 철도시설 내 목조건축 활성화 ▲ 운행선 선상역사의 시공성 향상 방안 등을 논의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협력사 간 공정경쟁과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결의대회를 실시한 후, 협력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단은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윤양 국가철도공단 SE융합본부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협력사의 의견을 직접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건축 및 기계설비 분야의 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두산에너지빌리티

두산그룹, '바보의 나눔'에 성금 10억 원 기부

두산그룹은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에 성금 10억 원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26일 서울 명동 성당에서 열린 성금 전달식에는 박지원 두산그룹 부회장과 바보의 나눔 이사장 구요비 주교가 참석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 가운데 일부는, 가족을 돌보면서 가장 역할을 하는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영 케어러)'을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하는 데 쓰인다. 두산은 지난 2022년부터 질병을 앓고 있거나 장애가 있는 부모, 조부모·한부모 등과 살고 있는 영케어러 가정에 간병·의료비, 학습환경 조성, 주거공간 개보수 등을 지원해 왔다.

또한 이번 성금은 취약계층 어린이 환자 치료비 지원, 저개발국가 의료봉사 등에도 활용될 계획이다.

'바보의나눔'은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사랑과 나눔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2010년 설립된 민간 모금 기관이다. 두산그룹은 2012년부터 '바보의 나눔'에 매년 성금을 기부하고 있다.



2- 박지원 두산그룹 부회장(사진 왼쪽)과 구요비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이사장이 26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성금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

KOEN 한국남동발전,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현장 간담회 가져

- 26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과 기업 현장간담회 개최
- 발전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

한국남동발전(사장 강기윤)은 26일 경남 진주시 본사에서 강기윤 한국남동발전 사장과 한무경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협력중소기업 10개사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융합기술 제품과 관련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산업융합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을 위해 설립된 정부기관이다. 이번 간담회는 발전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규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강기윤 남동발전 사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협력중소기업 경영진과 기업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경영에 걸림돌이 되어온 애로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수입산 목재펠릿에 적용되는 REC 가중치의 축소방안 재검토와 개발선택품을 우선구매대상으로 재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한무경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기업의 고충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강기윤 한국남동발전 사장은 "손톱 밑의 가시로 불리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협력중소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산업부 옴부즈만과 힘을 합쳐 각종 규제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부발전, 동해안협의회 협업으로 공통현안 해결 위한 협업체계 구축

- 전력거래소, 저탄장 화재 방지를 위한 최적 계통 운영방안 도출

- 발전사 협력으로 송전제약에 따른 석탄 장기보관 시 화재위험 차단 방안 마련

한국남부발전(주)(사장 김준동, 이하 '남부발전')이 전력거래소, 동해안 화력발전사(강릉에코파워, 삼척블루파워, GS동해전력)와 협력해 송전 제약 상황에서 석탄 장기보관으로 인한 저탄장 화재 예방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동해안에는 남부발전의 삼척빛드림본부를 포함한 4개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송전제약으로 인해 특정 발전소가 정지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동해안 화력발전사는 발전소 이용률 저하와 함께 저탄장 내 석탄이 장기 보관되면서 석탄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위험을 갖고 있다.

남부발전은 자연발화를 대비해 자체적으로 발전소 장기 정지를 대비한 「저탄장 관리기준」을 수립하여 화재 모니터링 및 단계별 대응방안을 운영하는 한편, 송전제약 상황에서 안정적 계통운영을 위해 최소출력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등 다각적 노력을 추진해 왔다.

또한 남부발전, 전력거래소, 동해안 화력발전사로 구성된 「동해안 협의회」는 발전사 공통현안인 저탄장 자연발화 시 화재예방을 위해 공동 대응방안을 수립·운영 중이며,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가 예상될 경우, 전력거래소는 화재 예방을 위한 최적 계통운영방안을 도출하고, 동해안 화력발전사는 발전소 긴급 운전을 통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올해 2월 남부발전은 삼척빛드림본부 발전소 정지중 저탄장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동해안 협의회를 통해 전력거래소, 동해안 화력발전사와 협업하여 화재를 예방한 바 있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발전소 장기 정지로 인한 화재위험 등 동해안 화력발전사가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에 대해, 전력거래소 및 발전사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동서발전

한국동서발전, 중소기업 업의전환 지속지원 전략로드맵 수립

석탄발전 축소에 따른 중소기업 업의전환 지원... '함께성장' 실현

한국동서발전(주)(사장 권명호)는 '에너지산업 대전환기 함께성장을 위한 업의전환 지원사업 전략로드맵'을 발표했다고 26일(수) 밝혔다.

'업의전환 지원사업 전략로드맵'은 국내 석탄발전소 단계적 폐지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발전소내의 협력사 및 발전소 지역업체에의 지원과는 별도로, 석탄설비 기자재 제작 중소기업의 신재생·신사업 분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동서발전이 국내 최초로 수립했다.

특히 기업의 역량 수준에 따라 △초보 △도약 △성장단계로 구분하고 △진단 △컨설팅 △직접 지원 △판로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미래 에너지산업 생태계에서 '함께성장'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한다.

업의전환 지원사업 대상은 한국동서발전의 석탄 발전소인 당진발전본부와 동해발전본부에 기자재를 납품하는 204개 기업이다. 2025년 18개사를 대상으로 업의전환을 시행하고 2035년까지는 요청기업에 단계별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원을 이어나간다.

한국동서발전은 27일(목) '동서발전-협력중소기업 상생소통 선포식'을 개최하여 '업의전환 지속지원 전략로드맵'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3월부터 2025년도 업의전환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서부발전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 직원들과 '즉문즉답' 투명경영 소통 행보

- 직원들과 현안공유·현장소통 위한 'CEO 타운홀 미팅' 진행
- 2월부터 한 달간 태안발전본부 등 10개 사업소 돌며 경영전략 공유
- '내일의 리더가 묻고 오늘의 리더가 답한다'를 주제로 현장 질의응답

이정복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회사의 지속 성장 방향성을 고민하고 조직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에서 직원들과 즉시 묻고 즉시 답하는 '즉문즉답' 소통 행보에 나섰다.

서부발전은 지난 1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약 한 달 동안 본사를 비롯해 태안과 구미 등 전국 사업소 10곳을 돌며 부장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현장 소통·공감을 위한 CEO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고 2월 26일(수) 밝혔다.

CEO 타운홀 미팅은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이 직접 직원들과 경영 현안을 공유하고 투명·윤리경영 실행력을 높여 구성원 간 신뢰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회사의 현재 수준을 진단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을 발표했다.

화력발전 폐지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서부발전만의 생존전략을 모색하고 친환경 에너지 전원의 확대와 맞물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등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첫 행보로 태안발전본부를 찾은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회사의 단기·중장기 경영전략 등을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해상풍력 중심의 신재생 발전을 확대하고 해외로는 중동지역을 전초기지로 태양광·가스복합 발전사업에 주력해 궁극적으로는 그린수소·암모니아 생산, 발전까지 나아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서부발전 직원들의 10년 후 미래를 위해 성공의 씨앗을 뿌린다는 마음가짐으로 경영활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내일의 리더가 묻고 오늘의 리더가 답한다'라는 부제로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사장과 일선 직원 사이의 문턱을 없앤 즉문즉답 소통이 이뤄져 직원들의 관심을 끌었다. 현장에서 직원들이 질문하면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이 즉시 답하는 질의응답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소통행사에 참여한 한 직원은 "사장님이 경영 방향이나 현안을 설명하는 시간을 통해 현장의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엿볼 수 있었다"면서 "여러 직원들과 예상보다 깊이 있고 진솔한 대화가 오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이번 행사는 '면즉통'(面則通)이라는 저만의 경영철학을 실천한 것으로, 직원들과 대면해 진심으로 소통하면 난관을 헤쳐 나갈 길이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 원칙을 기반으로 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 자립준비청년 '열여덟 혼자서기' 인턴십 기관 현판 전달

2021년부터 자립준비청년 50명 직장체험 지원, 31명 취업 성공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26일 '열여덟 혼자서기' 인턴십 운영기관에 현판을 전달했다.

올해로 4년차를 맞이한 '열여덟 혼자서기' 사업은 아동복지시설 퇴소를 앞둔 자립준비청년들을 지원하는 한수원의 미래세대 대상 사회공헌 사업이다. 한수원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협업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초학습, 인턴십, 자립수당, 취업축하금 및 취업지원비 등 자립 단계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직장 인턴십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개인의 적성·전공에 맞는 직장을 매칭해 실제 직장생활을 경험을 토대로 진로 탐색 및 실무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총 8번의 방학 기간동안 50명의 청년들이 호텔인터불고 대구, 대한항공, 포항MBC 등 다양한 직장에서 자립역량을 키웠다. 이를 통해 31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취업에 성공하였다.

한수원은 이날 2025년 동계 인턴십에 참여한 5개 기관(백경희 웨딩, 청소하는 남자, 호텔인터불고 대구, 유엔풋볼클럽, 고도 도예) 중 경주 백경희 웨딩에 '열여덟 혼자서기 인턴십 참여기관' 현판을 전달했다.

정용석 한수원 기획본부장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다양한 직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주신 인턴십 참여기관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과 미래세대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열여덟 혼자서기' 외에도 '지역아동센터 행복나눔', '안심카 플러스 지원사업' 등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중부발전

한국중부발전, 「2025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산업부 장관상 수상

적극적 탄소감축 노력, 온실가스 감축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사업 성과 인정

한국중부발전(사장 이영조)은 2월 26일 수요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기후변화 포럼에서 주최하는 「2025 대한민국 녹색기후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녹색기후상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추진에 공로가 큰 단체 또는 개인을 격려하고 모범사례 확산을 위한 국내 대표 기후변화 종합시상이다.

한국중부발전은 △발전소 효율 개선 및 연료전환, △국내·외 동반성장형 온실가스 감축사업, △해양흡수원 조성 및 수자원 재이용 사업, △CCUS 기술개발 및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상용화, △무탄소 발전원 개발, △지역사회 협업을 통한 탄소중립 생활실천 문화확산 등 다양한 사업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중부발전 이영조 사장은 "이번 수상으로 한국중부발전의 기후변화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목표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길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3 - 한국중부발전 김종서 발전환경처장(왼쪽)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전KPS 지속가능경영보고서, 美 LACP 비전 어워드 대상

발·송전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가 발간한 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LACP, League of American Communications Professionals)'이 주관한 '2023·2024 비전 어워드(Vision Awards)'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LACP 비전 어워드는 올해로 24년차를 맞는 세계 최대 규모 커뮤니케이션 제작물 경연대회로 매년 국내외 1,000개 이상의 기업 연차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심사한다.

한전KPS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전체 8개 평가 항목 중 7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으면서 총점 99점(100점 만점)으로 전력 유틸리티 분야 ESG 보고서 부문 최고 등급인 대상(Platinum)을 수상했다.

특히 글로벌 랭킹 29위에 선정돼 세계 100위권의 보고서를 대상으로 하는 '톱 100 리포트 월드 와이드(Top 100 Reports Worldwide)'를 수상했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탁월한 보고서에 수상하는 '테크니컬 어치브먼트 어워드(Technical Achievement Awards)'에도 이름을 올렸다.

심사에서 한전KPS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Green Energy와 함께, 사랑받는 지속성장 기업'이라는 ESG 비전 아래 회사의 ESG 경영 추진 노력을 일관되고 이해하기 쉽게 서술했다는 평을 받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노후 발전소 성능개선 사업, 청정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동반성장 사업 등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명확성과 정보 전달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홍연 사장은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ESG 경영을 강화하고자 한 회사의 노력이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비롯한 다양한 소통채널로 이해관계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공공기관으로서 미래세대를 위한 ESG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1번째 발간한 한전KPS 지속가능보고서는 투명한 경영공시와 ESG경영 실천 노력을 공유하기 위해 한전KPS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2023/24 VISION AWARDS
ESG REPORT COMPETITION

KEPCO KPS
NAEUNMIRAE CORPORATION

is presented with the
Platinum Award

for excellence within its industry on the development of the organization's ESG report for the past fiscal year.

Tyson Heyn
Principal

Christine Kennedy
Competition Director



2023/24 VISION AWARDS
ESG REPORT COMPETITION

KEPCO KPS
NAEUNMIRAE CORPORATION

is recognized for developing one of the
Top 100 Reports Worldwide

ranking at 429 among all reports reviewed for the past fiscal year.

Tyson Heyn
Principal

Christine Kennedy
Competition Director



2023/24 VISION AWARDS
ESG REPORT COMPETITION

KEPCO KPS
NAEUNMIRAE CORPORATION

is presented with the
Technical Achievement Award

for overall excellence in the art and method of ESG report communications for the past fiscal year.

Tyson Heyn
Principal

Christine Kennedy
Competition Director



한전KDN, 미국 2023/24 LACP 비전 어워드 금상 수상

글로벌 톱 100보고서와 기술성과 어워드 동시 수상 등 2년 연속 수상

한전KDN(사장 박상형)이 지난해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글로벌 마케팅 전문 기관인 미국 커뮤니케이션연맹(LACP)이 주관하는 '2023/24 비전 어워드'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올해 23주년을 맞은 '비전 어워드'는 LACP(League of American Communications Professionals)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커뮤니케이션 제작물 경연대회로 매년 20여개 국가의 1000여개 정부기관, 기업, 비영리단체에서 발간하는 경영보고서, 연차보고서 등을 평가해 시상하고 있다.

한전KDN의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표지, 정보 접근성, 이해관계자 메시지 등 8개 항목 중 6개 부분에서 총 98점(100점 만점)을 받아 2년 연속 수상했다.

또한, 참여한 보고서 가운데 LACP가 선정한 글로벌 톱 100 보고서(TOP 100 Reports Worldwide)와 기술성과 어워드(Technical Achievement Award)에도 각각 이름을 올렸다.

한전KDN은 자체 선정한 ESG 비전인 '사람과 환경을 WE하다'를 실천하기 위한 친환경 에너지ICT 기술 개발 성과를 비롯한 다양한 ESG 경영 활동을 담았으며 독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기관 최초로 가로형 인터랙티브 PDF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전KDN 관계자는 "지속적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으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더욱 투명한 정보공개 및 기후변화 대응 등 실질적인 ESG경영 실천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오션

한화오션, 세계 최초로 200번째 LNG운반선 인도

- 세계 최다 LNG운반선 수주 및 건조 기록... 초격차 기술력 새로운 이정표
- LNG 관련 기술 개발, 생산성 혁신이 원동력
- LNG운반선 시장 점유율 1위... LNG 설비 풀라인업 갖춰

한화오션이 세계 최초로 200번째 LNG운반선을 성공적으로 인도했다. 조선산업의 역사를 새로 쓴 한화오션은 압도적인 기술력과 생산성 혁신을 통해 글로벌 LNG운반선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재차 입증했다.

한화오션(대표이사 김희철 사장)은 회사가 건조한 200번째 LNG운반선인 '레브레사(LEBRETHAH)'호를 SK해운에 20일 인도했다고 밝혔다. 레브레사호는 카타르 에너지의 노스필드 확장 프로젝트(North Field Expansion Project)에 투입·운영될 예정이다. 운영사는 SK해운, 에이치라인해운, 팬오션 등 국내 3개 회사로 구성된 KGL(Korea Green LNG Ltd.)이다.

저압 이중연료추진엔진(ME-GA)과 재액화설비가 탑재된 레브레사호는 대기 오염물질의 배출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선박이다. 효율적인 선박 운영을 위해 한화오션의 스마트십 솔루션인 HS4 등 최신 기술 역시 적용됐다.

21년 vs 9년... 기술 개발·생산성 혁신으로 건조 기간 단축

한화오션은 1995년 첫 번째 LNG운반선을 성공적으로 인도하면서 역사의 장을 열었다. 이후 21년 만인 지난 2016년 100번째 LNG운반선을 인도했다. 같은 기간, 기술 개발과 생산성 혁신을 동시에 이룬 한화오션은 나머지 100척을 단 9년 만에 건조했다. 첫 100번째 건조 시기보다 2배 이상 빨리 나머지 100척을 건조한 것이다.

한화오션의 기술 개발 노력과 생산성 향상은 1도크에서 4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기술 체제를 구축한 것에서 가장 먼저 확인된다. 한화오션은 이를 통해 연간 최대 25척의 LNG운반선을 건조할 수 있는 역대 최다 생산 능력을 확보했다.

LNG운반선 시장 점유율 1위, 한화오션의 기술 리더십

한화오션은 LNG운반선, 쇠빙LNG운반선, LNG-RV, LNG-FSRU, LNG-FSU, LNG-FPSO 등 LNG관련 설비의 풀라인업을 구축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쇠빙LNG운반선, LNG-RV, LNG-FSRU, LNG-FPSO 등을 건조한 한화오션은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LNG 관련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한화오션의 기술적 우위는 시장 점유율 1위라는 성과로도 이어졌다.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LNG 수요와 친환경 선박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한화오션은 부분재액화시스템, 고압 및 저압 엔진용 완전재액화시스템 등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등 선박의 연료효율성을 향상시켜왔다. 또 탄소 저감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했다.

LNG 수요 증가... 한화오션 성장 전망 더욱 밝다

최근 글로벌 LNG 시장은 활력을 되찾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화석연료 정책을 전환하면서 중단된 LNG 프로젝트가 재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LNG운반선 수요 또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글로벌 조선·해운 투자금융사 클락슨시큐리티스는 글로벌 LNG운반선 신조 수요가 2029년까지 최대 126척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약 47조 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업계에서는 한국 조선사가 중국 조선소의 미국 블랙리스트 등재 등 국제 정세 측면에서 반사이익을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LNG운반선에 강점이 있는 한화오션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화오션 상선사업부장 김종서 사장은 “미국의 화석연료 정책 변화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LNG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한화오션이 글로벌 선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줄 최고의 조선소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한화오션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글로벌 LNG운반선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계획이다. 이어 LNG운반선뿐만 아니라 LNG 관련 다양한 해양 설비 기술도 개발해 조선업계의 혁신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문의

한국프로젝트경영협회

편집자 최아영 과장

TEL +82-2-523-1644

FAX +82-2-523-1680

E-mail aychoi@pma.or.kr

<https://www.pma.or.kr>